

고산정(孤山亭) 시문을 통해 본 17세기 초 朝鮮·明朝 사대부의 공간인식

權錫煥*

◁목 차▷

- I. 서론
 - II. 병오년·기유년의 교류 여정과 인문 공간
 - 1. 병오년·기유년의 교류 인물과 그 여정
 - 2. 주지번의 서화교류와 인문경관
 - III. 고산정(孤山亭) 시문에 반영된 사대부의 공간인식
 - 1. 고산정 시문에 나타난 인문경관
 - 2. 고산정 시문에 담긴 사대부의 공간인식
 - IV. 결론: 고산정의 문화교류적 가치
-

I. 서론

17세기 초, 조선은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과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1637)의 사이에 놓여 있었고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시기였다. 이 시기 조선의 정치중심이 훈구대신으로부터 사림(士林)으로 이동하면서 정치적 분열과 사화(士禍)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당시 동북아의 국제정세를 보면, 중국은 한족(漢族)에서 만주족(滿洲族)으로 중원의 통치 민족이 바뀌는 한편 정권이 명조(明朝)에서 청조(淸朝)로 교체되기 직전이었고, 일본은 전국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부 시대가 시작되어 국내외 상권과 무역을 장악하여 주변국가로 세력을 팽창시켰고, 조선은 일본에 최초로 통신사를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한 마디로, 동북아의 정세는 일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고,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었다.

* 상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17세기 초, 국제정세의 변화와 함께 명조와 조선 간의 공식적 사신 외교는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17세기 초 양국은 임인년(壬寅年, 宣祖35, 萬曆30, 1602), 병오년(丙午年, 宣祖38년, 萬曆33년, 1606), 기유년(己酉年, 光海君 원년, 萬曆37년, 1609), 신유년(辛酉年, 광해13, 天啓 원년, 1621), 병인년(丙寅年, 인조4, 天啓6년, 1626), 계유년(癸酉年, 인조11, 崇禎6년, 1633) 모두 여섯 차례 사신 간의 교류를 진행하였다. 조선 정부는 명조에서 사신이 온다는 소식을 접하면, 천사도감(天使都監)을 설치하여 손님맞이 준비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원접사(遠接使)·종사관(從事官)·관반(館伴) 등을 선발하고 관례에 따라 의전을 진행하였다. 교류의 전 일정은 의궤(儀軌)나 《황화집(皇華集)》에 기록으로 남겼다.

17세기 초 여섯 차례 중에서 병오년과 기유년의 사신 교류는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 모두 조선 원접사가 유근(柳根, 1549-1627)이었다는 점, 유근과 명조 사신 주지번(朱之蕃, 1558-1624)·양유년(梁有年, ?-1614)·옹화(熊化, ?-1649) 모두 과거출신 관료였다는 점, 그리고 공식적인 기록인 《황화집》 외에 주지번의 《봉사조선고(奉使朝鮮稿)》와 양유년의 《봉동방록(奉東方錄)》처럼 개인적인 사행 기록이 출판되었다는 점, 그리고 모두 충북 괴산 고산정(孤山亭)에 교류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17세기 초 사신 간의 문화교류에 관심이 많았다. 사신간의 교류가 국가 간의 공식적 정치외교 행위였지만, 이들의 시문 창화와 서화 교류는 사적이면서도 문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의 문학 교류를 통한 문학사조의 수용, 사신 교류의 문학적 성격, 서화 방면의 영향과 수용, 양국의 문화적 지위 등에 관한 연구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¹⁾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지만 새로운 각도에서 17세기 초 두 차례의 사신들 간의 교류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를 파악하려고 한다. 그들이 남긴 시문을 인문지리적 관점에서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명조 사신 일행은 대체로 정해진 노정을 밟았다. 명조의 수도 경사(京師: 북경)에서 출발하여 산해관

1) 안나미, 〈17세기 전후 韓中 문학교류 연구 : 晚明 文學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동아시아학과 박사논문 2011. 2.

김홍대, 〈朱之蕃의 丙午使行과 그의 서화연구〉, 온지논총11 온지학회 2004.

노경희, 〈17세기 초 문관출신 명사(明使) 접반(接伴)과 한중(韓中) 문학교류〉, 韓國漢文學研究, 2005年 第9期.

(山海關)을 거쳐 압록강에 이르러 조선 접반사 일행과 만나 함께 한성에 도착, 사행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시 접반사 일행과 헤어져 압록강을 넘어 귀국하는 여정이다. 사신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그 느낌을 시문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사신들은 직접 현장으로 가서 눈으로 보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나 그림에 근거로 하여 시문을 남기는 경우도 있었다. 고산정에 남아있는 사신들의 시문(판상 시문)이 바로 이러한 예이다. 이것은 상상력을 통해 체험의 선을 연장시킨 것이다.

고산정은 두 차례 사신 교류의 시문이 남아 있다. 하나의 누정은 공간적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텍스트로 인하여 시간적이면서도 정신적인 산물이 된다. 고산정 시문에는 대변혁 속에 살았던 당시 사신들이 공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한편으로는 사회 참여와 은거에 대하여 어떤 태도가 담겨져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17세기 초 병오년과 기유년 두 차례의 양국 사신들이 고산정에 남긴 시문을 통하여 당시 사대부들의 공간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두 차례의 명조 사신을 중심으로 교류 인물들의 시문을 통하여 인문경관의 의미를 파악하고, 각 시문에 반영된 당시 사대부들의 현실참여에 대한 태도를 발견하고자 한다.

II. 병오년·기유년의 교류 여정과 인문 공간

1. 병오년·기유년의 교류 인물과 그 여정

조선과 명조간의 사신 교류는 1449년에서 시작되었고 대부분 육로 여정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1621년부터 여진족이 동북 지방을 점유함에 따라 해로 여정으로 변화되기 전까지 170년간 육로 여정은 지속되었다. 육로 여정은 정해진 역참을 통과하게 되는데, 크게 보면 중국의 경사(북경)에서 출발하여 산해관(山海關)→요양(遼陽)→압록강(鴨綠江)→평안도(平安道)→황해도(黃海道)→경기도(京畿道)→한성(漢城)의 각 역참을 통과하였다. 각 역참을 표로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²⁾

〈명조 사신의 조선 사행로〉

국가	단계	도시	역참
明朝	京師→山海關 (600여리)	通州, 三河縣, 薊州, 玉田縣, 豐潤縣, 永平 府, 遷安縣, 撫寧縣	潞河驛, 三河驛, 漁陽驛, 陽 樊驛, 永濟驛, 義豐驛, 七家 嶺驛, 灤河驛, 芦峰口驛, 遷 安驛, 榆關驛, 山海關
明朝	山海關→遼陽	遼東都司 관할 廣寧前 屯衛, 廣寧右屯衛, 遼 陽城	高嶺驛, 沙河驛, 東關驛, 曹 莊驛, 連山驛, 杏山驛, 小凌 河驛, 十三山驛, 閭陽驛, 盤 山驛, 高平驛, 沙嶺驛, 牛莊 驛, 海州衛, 鞍山驛
明朝	遼陽→鴨綠江 (560리)	東寧衛, 安寧衛.	浪子山驛, 牯水驛, 連山關, 通遠堡, 鳳凰城, 湯站堡, 九 連城(鎮江堡)
朝鮮	平安道	義州牧, 平壤, 中和君	義順館, 所串館, 良策館, 車 輦館, 林畔館, 雲興館, 新安 館, 納清亭, 嘉平館, 安興 館, 雲巖館, 肅寧館, 安定 館, 大同館, 生陽館
朝鮮	黃海道	黃州牧, 江陽縣	貯福院, 齊安館, 沙里院, 洞 仙館, 劍水館, 龍泉館, 安城 館, 寶山館, 金巖館, 興義 館, 金郊館,
朝鮮	京畿道	開城, 漢城	太平館, 招賢院, 東坡館, 碧 蹄館, 坡州館, 迎曙館, 慕華 館

병오년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 1558-1624)³⁾ 역시 대체로 이러한 여정을

2) 杜慧月, 《明代文臣出使朝鮮與皇華集》, 人民出版社, 2010, 25-57쪽 참조 정리.

3) 주지번의 자는 원승(元升), 혹은 원개(元介), 호는 난우(蘭隅)·정각주인(定覺主人)이다. 만력23년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원수찬(翰林院修撰)에 제수되었고, 예부우시랑(禮部右侍郎)에 이르렀다. 당시 사신은 천사(天使)로 불렸고, 그의 벼슬은 한림원수찬(翰林院修撰)이었다.

주지번의 생애에 관해서는 《明熹宗實錄》卷70, 錢謙益 《列朝詩集小傳》(丁集), 朱彝尊 《明詩綜》卷58 등에 기록이 보인다. 또한 〈朱之蕃의 문학 활동과 한중 문화 교류〉(丁生

거쳤다. 그는 명 황손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해 조선으로 왔다.⁴⁾ 당시 사신은 천사(天使)로 불렸고, 그의 부사는 양유년(梁有年)이었다. 이들을 맞이했던 조선 원접사는 유근이었고, 관반은 이호민(李好閔 1553-1634)이었다.

주지번과 관련된 《병오황화집(丙午皇華集)》·《봉사조선고》의 시문을 참고하면, 주지번 일행은 1606년 2월 16일 북경을 출발하여 3월 24일 압록강을 넘어 조선 땅에 들어왔다. 4월 11일 한성 모화관(慕華館)에 도착하였고, 한성에서의 공식적인 사행 활동 중에 한강 등을 유람하였으며, 4월 20일 선조의 송별연회를 끝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마쳤다.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도착한 것이 대략 5월 초가 된다. 그는 7월 7일 북경에 도착하여 황제에게 귀국보고를 하였다. 약 5개월의 여정인 셈이다.

앞서 언급한 《봉사조선고》⁵⁾는 《황화집》과 달리 사행의 여정을 사적으로 기록한 것인데, 북경에서 출발하여 국경 압록강을 넘어 원접사 유근 일행을 만날 때 까지, 그리고 한성에 도착하는 과정, 그리고 한성에서 한강 등을 유람한 내용, 귀로에서 바라본 산천경계와 풍속 등을 묘사한 것이다. 마치 이것은 유람의 기행 일기와도 같아 개인적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책에는 유근이 편찬한 조선 문인들의 시문집인 《동방화음(東方和音)》이 합본되어 있는데, 이호민(李好閔 1553-1634), 이광정(李光庭 1552-1627), 이정구(李廷龜 1564-1635), 신흘(申欽 1566-1628), 조희일(趙希逸 1575-1638), 이지완(李志完 1575-1617), 허균(許筠 1569-1618)

花,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석사학위논문, 2010)에 그의 사적에 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참고할만 하다.

- 4) 《明神宗實錄》卷四一六: 勅曰茲朕皇孫誕生, 覃恩宇內. 念王世守東藩, 恪修職貢, 宜加恩賚以答忠誠, 特遣翰林院修撰朱之蕃·禮科左給事中梁有年充正副使, 捧賚詔諭, 并賜王及妃彩幣文錦

조선시대 기록으로는尹國馨, 《甲辰漫錄》, 《朝鮮王朝實錄·宣祖》38年 乙巳. 《朝鮮王朝實錄·宣祖》〈39年 丙午〉에 이 사실을 밝히고 있다.

- 5) 《四庫全書總目提要》百十九 《奉使朝鮮稿》(無卷數, 兩江總督採進本)

明朱之蕃撰. 之蕃字元介, 荏平人. 南京錦衣衛籍, 萬曆乙未進士第一, 官至吏部右侍郎. 之蕃以萬曆乙巳冬, 被命使朝鮮, 丙午春仲出都, 夏抄入關, 與館伴周旋, 有倡必和, 錄爲二大冊. 第一冊爲《奉使朝鮮稿》, 前詩後雜著, 之蕃作也; 第二冊爲《東方和音》, 朝鮮國議政府左贊成柳根等詩也. 未有《乙未制策》一道, 及東閣倡和詩數首, 爲讀卷官沈演等作, 蓋後人所附入. 案: 《千頃堂書目》, 載之蕃《使朝鮮稿》四卷, 《紀勝詩》一卷, 《南還雜著》一卷, 《廷試策》一卷, 《落花詩》一卷, 與此大同小異, 蓋所見者又一別本云.

등 27명의 조선 문인들의 시를 모은 것으로 조선 산천의 경색을 묘사하였다.

《봉사조선고》에 수록된 시문을 보면, 주지번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병오 중춘(仲春) 16일 경사를 출발(丙午仲春十六日出都)하면서 시문을 짓기 시작한다. 19일 계주(薊州) 입구에서 비를 맞았고(十九日薊州道口過雨), 24일 비가 온 뒤에 옥전(玉田)으로 출발하였으며(二十四日雨後往玉田), 31일 풍윤(豐潤)으로 가는 도중에 큰 바람을 맞이하는(三十日豐潤道中大風) 등, 명나라 땅을 거쳐 압록강을 넘어 원접사 유근과 만나 조선 땅을 지나게 된다. 의주(義州)에서 비를 만났고(赴義州值雨), 김효녀의 옛 사당(金孝女故閭)을 참배하였으며, 백현(白峴)·구장령(峴嶂嶺)·효성령(曉星嶺)·납청정(納淸亭) 등을 거쳤다. 평양에 이르러서는 부벽루(浮碧樓)·쾌재정(快哉亭) 등을 유람하였고, 대동강(大同江)을 건너 새벽에 검수(劍水)로 갔으며(曉赴劍水), 개성에 이르러 고려고궁(高麗故宮)을 참관하였고(高麗故宮), 임진강(臨津江)을 넘어 광탄(廣灘)·쌍석불(雙石佛)·혜음령(惠音嶺)·벽계(碧蹄)를 지나 사령(沙嶺)에서 한경성(漢京城)을 바라보았다.[沙嶺望漢京城]. 한성에 도착해서는 궁궐의 공식적인 행사 참여 외에 명륜당(明倫堂)을 참배하고 한강을 유람하였으며, 압구정(鴨鷗亭)·개춘정(皆春亭)·잠두봉(蠶頭峰)·창옥암(蒼玉巖)·선유봉(仙遊峰)·금화도(金華島) 등의 유적지를 탐방하였다.

이처럼 양국의 사신들은 명조와 조선 양국의 수도와 사이의 각 지역을 출발(發)하고, 때로 지나며(過), 만나고(遇), 머물며(宿), 오르며(登), 혹은 길 위에서(道中)에서 혹은 강을 건너면서(渡)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느꼈다. 그 느낌을 시문으로 포함으로써 각 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켰다. 각 역참을 한 개의 큰 점으로 삼고, 그 사이의 산천, 성곽, 묘당(廟堂), 관문, 촌락, 고개, 온천, 고려(故閭), 교각, 샘, 암대(巖臺)의 작은 점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킨다. 각각의 점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됨으로 해서, 양국의 문화교류 노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이다. 도상의 물상들과 유적지는 물론이고 풍속마저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연지리는 인문지리가 되고 자연경관은 인문경관으로 변화되었다.

주지번의 부사 양유년(梁有年 ?-1614)⁶⁾ 역시 조선 사행 중 조선의 원접사 및

6) 양유년은 광둥(廣東) 순덕인(順德人)이고, 호는 성전(惺田, 혹은 성전(星田)), 자는 서지(書之). 명 만력 갑오년에 향시에 합격하였고, 을미(乙未, 1595年)년 회시(會試)에 진사에 급제하여 ... 절강우포정(浙江右布政)에 이르렀다. ... 저서로는 《봉동방록(奉東方

관반 내지는 문인들과 창화시와 기행문을 기록하여 《봉동방록(奉東方錄)》을 출판하였다. 허균은 양유년이 《사동방록(使東方錄)》을 지었고, 자신이 〈사동방록발(使東方錄跋)〉을 지었다고 했는데 7) 아마도 두 권은 같은 책일 것이다. 그는 조선 문인들과의 사적인 문학 교류를 진행하였고, 이것은 귀국 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기유년의 명조 사신은 응화(熊化 ?-1649)⁸⁾였다. 《명신종실록(明神宗實錄)》卷455에 “내가 고인이 된 조선의 국왕 이연(李昞, 宣祖)에게 ‘소경(昭敬)’이라 시호(諡號)하고, 왕위를 계승한 국왕 이혼(李琿, 光海君)과 왕비 유씨(柳氏)를 책봉하는 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행인(行人) 응화에게 하사품을 내리도록 명하다.”⁹⁾라는 기록으로 보아, 응화는 조선 선조의 시호 결정, 광해군과 왕비 유씨의 책봉 사실을 조선에 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제일역사당안관(中國第一歷史檔案館)에 소장되어 있는 《조선영접천사도감청의궤(朝鮮迎接天使都監廳儀軌)》도 응화가 황명을 받고 조선 국왕 제사 사신이 되어 기유년(1609年) 사월 초 파일 압록강을 넘어갔다¹⁰⁾고 기록하고 있다.

錄)》이 전한다. 이것은 그가 조선 사행 중에 화창했던 시문과 기행문을 수록한 것이다. 그는 만력 33년(1605년) 주지번의 부사로 조선 사행을 수행하였고, 그를 맞이한 원접사는 유근이며, 관반은 이호민(李好閔)이었다. (과정훈(過庭訓)《本朝分省人物考》)卷111 明天啓刻本)

이외도 양유년의 사적은 《호광통지(湖廣通志)》(四庫全書本) 권41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明代文臣出使朝鮮與皇華集》(杜慧月, 人民出版社, 2010)은 양유년의 사적을 소개한 바 있다.

- 7) 《惺所覆瓿藁》13卷〈使東方錄跋〉黃門還朝. 編其奉使所作. 附以東人和章. 題曰使東方錄. 因節使回致於弊邑. 不佞亦得其一焉. 以鄙俚之言. 托此而傳耀於天下. 使海內操觚談藝者. 知海外有許筠端甫者. 豈非至幸歟. 其曰東方. 而不稱朝鮮者. 蓋親之至也.
- 8) 그는 강서성(江西省) 청강인(淸江人)으로, 자는 중룡(仲龍)이다. 호는 극봉(極峰)이고, 자신을 청강노인(淸江老人) 혹은 강우(江右)라고 불렀다. 만력 신축년(辛丑年)에 진사가 되어 행인(行人)의 벼슬을 지냈다. 일품(一品)을 하사받고 조선 사신이 되었다. 응화에 대한 사적은 정사의 기록은 보이지 않고, 시윤장(施閔章)의 《학여당문집(學餘堂文集)》 권16의 〈웅어사중용전략(熊御史仲龍傳略)〉에 기록되어 있다. 명나라 말에 이르러 북경이 함락되자, 응화는 민월(閩越)로 피난을 갔다가 만주족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하며 자결하였다. 그는 문장에 능통하였고 《당송팔가문(唐宋八家文)》을 교정하였으며, 저서로는 《정검당집(靜儉堂集)》(上海圖書館 소장. 淸 光緒 二十年 1894刊本)이 있다.
- 9) 《明神宗實錄》卷455 “予故朝鮮國王李昞諡昭敬. 仍冊封承襲國王李琿及妃柳氏誥命. 命行人熊化賚賜之.”

당시 옹화의 사행에는 부사(副使)가 동행하지 않았다. 조선 측 원접사는 유근이고 관반은 이정구였다. 옹화는 4월 25일 한성에 도착하여 광해군의 영접을 받았고, 28일 명조 황제의 시호 하사 의례를 진행하였으며, 5월 1일에는 한강을 유람하였다. 5월 3일에는 선조의 제사에 참여하였고, 4일에는 서강(西江)을 유람하고, 5월 18일 압록강을 건너 돌아갔다.

옹화에 관한 당시 기록은 '한국고전종합DB'를 근거로 할 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갑진만록(甲辰漫錄)》·《청음집(淸陰集)》·《월사집(月沙集)》 등 문집에 총 151번 등장한다. 옹화는 사행 중, 그리고 귀국 도중, 그리고 귀국 후에도 조선 문인들과의 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옹화는 사행 중 한강 서호(西湖) 유람 시에 윤근수(尹根壽 1537-1616)를 만나 함께 노닐었고, 특히 관반이었던 이정구와의 교류는 매우 활발하였다.¹¹⁾ 옹화는 조선 관반을 예의로 대했으며, 사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학교류를 진행하였다. 이정구의 《월사집(月沙集)·간첩(簡帖)》에는 두 사람이 사행 후에 교환한 서신이 수록되어 있다. 《황화집》의 출판과 교정 문제, 이정구가 지은 《회양시첩(淮陽詩帖)》의 서문 요청 등으로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서신을 주고받았다. 송시열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서신첩에 모두 3편의 〈발천사 옹화서첩(跋天使熊化書帖)〉을 지었고, 이를 통해 소중한 자료가 되어 후대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¹²⁾ 이는 모두 양국 사신간의 우의와 지속적인 교류를 입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병오년과 기유년 교류의 인물과 그들의 여정을 살펴보았다. 두 차례 모두 동일한 육로 여정이 있었고, 공식적인 《황화집》 외에 기행과 사적 교류적 성격이 강한 《봉사조선고》와 《봉동방록》을 통해 양국의 국토를 하나의 인문적 지리로 연결시켰다. 양국의 각 역참과 그 사이사이의 산천과 유적지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시켰다. 이것은 일정한 문화교류 노선을 확정하고 산천과 풍속을 하나로 연계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10) 《朝鮮迎接天使都監廳儀軌》“欽差賜祭天使行人司行人熊化己酉四月初八日午時越江”

11) 《淸陰集》 제25 〈議政府左議政月沙李文忠公廷龜神道碑銘〉

賜祭勅使熊化來，命公館伴。相得甚驩，每語必稱先生。見公唱和詩曰字唐人魄。臨別眷戀不舍，以皇華集敍文見屬。後公朝京，熊爲御史，聞公至，邀至其第，禮甚備，使事多有所濟。

12) 《宋子大典》 권147.

2. 주지번의 서화교류와 인문경관

두 차례의 사행 중에서 주지번의 조선에 남긴 서화 교류는 문화경관 구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주지번은 어려서부터 그림과 글씨에 뛰어났고 시문에 능통하였다. 그의 서예 수준에 대해서는 그가 조선에 오기 전부터 이미 널리 알려졌던 것 같다.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은 주지번(朱之蕃)의 서예 수준을 왕희지(王羲之)·안진경(顔眞卿)과 우위를 다투다고 평가하였다.¹³⁾ 주지번이 부채에 쓴 〈난정기(蘭亭記)〉는 당시 서단의 호평을 받았다. 주지번이 역시 조선 서단에 대하여 익히 알고 조선에 도착했던 것 같다. 그는 조선 명필 한호(韓濩)의 서예 수준을 높이 평가했다.¹⁴⁾ 한편 김진흥(金振興 1621~?)은 조선시대 전서의 대가였는데, 그는 일찍이 주지번이 지은 《전결(篆訣)》을 얻어 아침저녁으로 그 묘리(妙理)를 탐색하여 여러 개의 서체를 완성했다고 한다.¹⁵⁾

이런 연유로 주지번이 조선에 오자 많은 사람들이 초피(貂皮)와 삼(蔘)을 가지고 그에게 글씨를 부탁하였다¹⁶⁾. 글씨를 요청받으면 주지번은 주저하지 않고 써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윤국형(尹國馨)은 《갑진만록(甲辰漫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관 글씨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귀천을 막론하고 곧장 붓을 휘둘러 써주니, 그의 필적이 거의 중의 인가의 창이나 벽에 퍼지게 되었고, 비갈(碑碣)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호응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¹⁷⁾

이렇게 하여 그의 서예 작품이 조선에 많이 남게 되었다. 문헌과 건물에 남아있는 그의 글씨 작품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13) 《燃藜室記述》 제18권 〈宣祖朝故事本末〉.

14) 《朝鮮王朝實錄》 선조 39년 병오(1606, 만력 34) 8월6일.

15) 《宋子大典》 제137권 《篆大學序》.

16) 《列朝詩集》(《海東釋史》 제46권 〈藝文志 5〉).

17) 《甲辰漫錄》: 人有請額. 則無論貴賤. 便卽揮灑. 筆迹幾遍於中外人家窓壁. 至有以碑碣請者. 無不應之.

〈주진번이 조선에 남긴 편액과 석각 글씨〉

편액	건물 및 장소	落款	근거
明倫堂	成均館 明倫堂	大明 萬曆 丙午 賜進 士及第 翰 林院 修撰 欽差 正使 金陵 朱之 蕃書	《燃藜室記述》別集第3卷〈祀典典故〉, 《林下筆記》第22卷〈文獻指掌編〉
丕闡堂	成均館 丕闡堂		《林下筆記》 제30권 〈春明逸史〉〈각사 (各司)의 제액(題額)〉
安文成公 祠堂	紹修書院		《梓鄉誌·順興志·祠廟》
文會書院	文會書院		《承政院日記》英祖1年乙巳條 《朝鮮王朝實錄》肅宗 23年 丁丑10月1 日戊申
太虛樓	黃海道 黃州		《日省錄》正祖10年,《苟全先生文集別 集》〈朝天錄〉,《耳溪集》卷十二〈太虛樓 重修記〉
遊仙榻	松都 부근		《鶴臯先生文集》卷之九 〈山史〉
控江亭	平安道 安興		《苟全先生文集別集》〈朝天錄〉
望慕堂	전북 익산 왕 궁면 광암리	朱之蕃書	《瓢翁文集》,《두산백과》
豐沛之館	全州客舍		
永思亭	南原 永思亭		《河西先生全集》卷之五〈次永思亭韻〉 “亭在南原金岸. 安處順爲望先塋而建. 天使朱之蕃書其額”
第一溪山	天淵亭 옆 암 벽		《薊山紀程》第1卷
枕雲亭	황해북도 봉산		《象村集》〈象村先生集序文〉〈讀申相國

	군 枕雲亭		象村稿) 병오년에 주지번(朱之蕃)이 申欽의 아우 봉산군수(鳳山郡守) 신감(申鑑)을 위하여 '침운정(枕雲亭)' 세 글자를 써주었고, 신감은 이것을 소중히 여겨 첩(帖)을 만들어 두었다.
迎恩	한성 敦義門 밖 서북쪽에 있던 慕華館		《新增東國輿地勝覽》제3권〈漢城府〉, 《林下筆記》 제13권 〈文獻指掌編〉
砥柱	仙遊峯의 절벽		《愚伏集》 제2권 〈次蠶頭〉
勝集	한강 노량진 부용강		《楓石鼓篋集》卷第一〈芙蓉江集勝詩序〉 芙蓉江 팔경을 '승집'으로 표현. 팔경은 天柱 朵雲. 黔丹 紋霞. 栗嶼 魚罾. 蔓川 蟹燈. 烏灘 疊檣. 鷺梁 遙艇. 榭園 錦穀. 麥坪 玉屑.
湖山勝集	槐山 孤山亭	朱之蕃 爲 西峒詞丈	고산정 편역
習齋先生	渭陽里		《震溟集》卷之十〈六代祖習齋府君遺事〉
忠翊府都事三休子尹寬耐恭人崔氏之墓	儒城 普文山		《月沙先生集》卷之四十六 〈忠翊府都事贈承政院左承旨尹公墓碣銘 并序〉
聽泉仙榻, 玉乳靈泉(巖), 玉溜泉	황해도 蔥秀山 玉溜泉	朱之蕃題	《燕轅直指》제1권〈出疆錄〉, 《靑莊館全書》간본 이정유고 제3권, 《燕行日記》 제1권, 《松溪集》卷之五〈燕途紀行〉, 《與猶堂全書》第六集地理集第八卷〈大東水經〉, 《心田稿》〈戊子十月, 二十九日〉 (주지번의 상이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태반이 마모가 되어 있었다.) 玉溜泉 〈三月, 二十九日〉
蒼玉巖	蠶頭峰(楊花津)		《조선왕조실록》 宣祖39年 (“배를 타고 잠두 밑을 돌아 나오는데 푸른 절벽을 쳐다보고 말하기를 ‘창옥암(蒼玉岩)이라는 세 자(字)를 써 보낼 테니 절벽에 다 새기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西垞皇華詩集》卷之四〈敬次正使蒼玉巖韻〉
第一江山	練光亭		《心田稿》〈十一月, 初日五〉
隱屏巖	충북 괴산 고산정		《退堂先生文集》〈題朱熊兩天使孤山亭詩記後〉·《星湖全集》제56권〈朱太史孤山圖詩跋〉
霽月臺	충북 괴산 고산정		《退堂先生文集》〈題朱熊兩天使孤山亭詩記後〉·《星湖全集》제56권〈朱太史孤山圖詩跋〉

이상에서 주지번이 남긴 제자를 일목하였다. 그의 글씨는 산천 절벽, 명승지, 역관, 누정, 묘당, 비각 등에 수없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번의 조선에서 40여일의 체류 기간을 감안한다면 남긴 작품 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직접 현장에 가지 않고도 글씨를 남긴 것은 사적인 친분과 신뢰를 소중하게 여기는 당시의 사대부들의 풍모를 나타낸 것 외에도 상상력에 의한 체험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그가 조선에 남긴 글씨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균관의 ‘明倫堂’ 편액이다. 조선시대 성균관은 최고학부로서 국가 학문의 심장부였고, 그 중 명륜당은 교육의 산실이었다. 본래 ‘명륜당’ 편액은 두 개였는데 하나는 주자(朱子)가 쓴 것이고, 하나는 주지번의 글씨이다. 주자의 글씨는 중국에서 모사(模寫)하여 번각(翻刻)한 것이고, 주지번은 조선 사행 기간에 쓴 것이다.¹⁸⁾ 이 편액의 “대명 만력 병

18) 《林下筆記》 제22권 〈文獻指掌編〉.

오 진사급제 한림원수찬 흠차 정사 금릉 주지번이 쓰다(大明萬曆丙午 賜進士及第翰林院修撰 欽差正使金陵朱之蕃書)"라고 쓰인 낙관이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현재 명륜당에는 이것이 걸려 주지번의 문화적 지위를 알 수 있다.

그의 제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산수자연에 남긴 것(霽月臺, 隱屏巖, 第一江山, 蒼玉巖 등)은 자연에 대한 미적 표현이고, 누각 등 명승지에 남긴 것(玉溜泉, 迎恩, 枕雲亭, 豐沛之館, 控江亭 등)은 문화 예술적 의미 부여이며, 비문에 남긴 것(習齋先生, 忠翊府都事三休子尹寬附恭人崔氏之墓 등)은 조선 사대부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주지번의 제자 행위는 조선 산천이 중원의 구주(九州)만큼 아름답다는 의미와 함께 인문경관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지번은 그림을 통해 조선의 문화경관에 영향을 주었다. 《봉사조선고(奉使朝鮮稿)》에 〈제화위리오봉(題畫爲李五峰)〉·〈제회란석도(題廻瀾石圖)〉·〈제사엽도(題射獵圖)〉·〈제구여도(題九如圖)〉 등의 제화시(題畫詩)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그림에 대한 식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주지번은 당시 명나라에서 유행하던 오파(吳派)의 문인화첩인 《천고최성첩(千古最盛帖)》을 조선왕실에 선물한 바 있다. 주지번은 압록강을 넘어 조선 땅에 이르자 유근에게 《천고최성첩》의 발문을 부탁하였다고 한다. 이 시문서화집은 〈도화원기(桃花源記)〉와 같은 역대 시문을 그림과 서예로 표현한 것으로, 주지번이 글씨를 썼고 허균도 후기를 지었다¹⁹⁾ 이로 인하여, 조선에서 《만고기관첩(萬古奇觀帖)》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²⁰⁾ 또한 주지번은 중국의 황학루(黃鶴樓)·악양루(岳陽樓), 등왕각(滕王閣) 등의 명승지를 묘사한 〈주태사십이화첩(朱太史十二畫貼)〉을 원본을 선조에게 진상하고 부분을 유근에 주었다.²¹⁾ 주지번이 서문을 쓴 《고씨화보(雇氏畫譜)》도 조선에 전래되어 조선 문인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당시 중국에서는 《당시화보(唐詩畫譜)》와 《십죽재서화보(十竹齋書畫譜)》가 그림 교과서로서 유행하였는데, 이 두

19) 《西坳文集》卷之六〈千古最盛跋〉 萬曆丙午春. 受國君之命. 迎候詔使於江上. 正使大人乃於過江之初. 出示千古最盛一帖. 要不佞題一語以爲跋. 不佞屢辭不獲命. 竊觀卷中. 有圖畫有詩文. 若桃源記以下摠二十幅. 皆古人所作而大人所自書也. 이외에도 《惺所覆瓿稿》卷之十三 文部十 〈題千古最盛後〉에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20) 유미나, 〈18세기 전반의 詩文 故事 書畫帖 考察〉, 《萬古奇觀》帖을 중심으로, 강좌 미술사 제24호(2005. 6), pp.123-155, 〈萬古奇觀帖〉과 18세기 전반의 畫員 繪畫, 강좌 미술사 제28호(2007년 6월), pp.177-208.

21) 《記言·書畫》〈模朱太史十二畫貼圖序〉.

권 속에도 주지번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이 두 책도 《친고최성첩》과 함께 전래되어 조선 화단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지번이 산천 절벽, 명승지, 역관, 누정, 묘당, 비각 산수명승, 누각에 남긴 제자(題字)는 산수자연에 대한 미학적 해석으로서, 조선 산천을 중원과 대등하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제화시와 서첩의 전래는 한국의 인문경관을 형성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하였다.

Ⅲ. 고산정(孤山亭) 시문에 반영된 사대부의 공간인식

1. 고산정 시문에 나타난 인문경관

이제 고산정 시문이 ‘고산정’이란 공간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자.

고산정은 현재 충청북도 괴산읍(槐山邑) 제월리(霽月里)에 위치하고 있다.²²⁾ 이 정자의 주인은 유근(柳根 1549-1627)²³⁾으로, 그가 1596년(선조 29) 충청도 관찰사로 있을 때 지은 것이다. 고산정에는 유근이 1606년 명조 사신 주지번과 부사 양유년 일행, 그리고 1609년에는 응화 일행과 주고받은 시문이 판상에 새겨져 걸려있다.²⁴⁾

22) 유근은 제월리 일대의 풍광에 매료되어 고산정사(孤山精舍)라는 별서(別墅)를 지어 기거하였으며, 그 안에 장송 수백 그루를 심고 정자를 지었기 때문에 만송정(萬松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만송정은 ‘고산정사’의 일부였기 때문에 현재는 ‘고산정’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1695년(숙종21년)에 발행된 《괴산군읍지(槐山郡邑誌)》에 고산정사가 당시에 소실되었고, 영조 당시 간행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터만 남아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본 정자는 영조 이후에 개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槐山郡志》, 槐山郡誌編纂委員會, 1990. 956-957쪽)

23) 유근의 사적에 관해서는 《괴산군지(槐山郡誌)》(1990. 1034쪽)·《한국민족문화대백과》(2010,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역 국조인물고》(1999.12.30, 세종대왕기념사업회)·《택당집(澤堂集)》 제4권 시(詩)〈진원(晉原) 유공(柳公) 근(根)에 대한 만사 20운(韻)〉을 참고할 수 있다.

24) 《괴산군지(槐山郡誌)》의 설명에 의하면, 이상의 편액들은 조선 말기에 일제가 강탈해 가져갔다고 한다. 모두 다 그런 것인지, 현재 보관처는 어디이고, 어떤 상태인지에 관

고산정에 남아 있는 시문과 석각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고산정 관련 시문과 석각〉

작가	원제	해석 제목	형식	문헌/장소
주지번	西峒老丈圖 示孤山隱居 之勝爲賦長 歌兼致別意 并祈和教以 慰離懷	서경 어른이 〈고산은 거승도〉를 보이기에 이를 위해 장편의 시 를 짓고 이별의 뜻을 전했으며 아울러 석별 의 감정을 달랜다.	〈고산은거지승도 (孤山隱居之勝 圖)〉에 붙인 제 화시(題畫詩)	《奉使朝鮮稿》 《槐山郡志》, 고산정 편역
유근	敬次正使孤 山隱居圖韻	정사의 고산은거도 시 에 삼가 차운시를 짓 다	차운시	《西峒皇華詩 集卷之四詩 集》, 고산정 편역
주지번	湖山勝集	호수와 산봉우리의 아 름다운 경치가 모두 한 군데 모여 있다	朱之蕃爲西峒詞 丈(주지번이 서 형 시인을 위해 쓰다) 편역	고산정 편역
양유년	孤山九景爲 伴送使柳贊 成西峒國相 題	전송사절 찬성 유근 재상을 위해 고산구경 시를 쓰다	고산구경(孤山九 景)시	고산정 편역
유근	謝副使贈萬 松亭九景詩 韻二首	부사가 지어준 만송정 9경시에 감사하는 시 두 수를 짓다	구경시에 대한 차운시	고산정 편역
응화	柳晦夫孤山 精舍記	유희부고산정사기	기문	柳根, 《西峒 集》 〈西峒皇 華詩集卷之

해서는 기술하지 않아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걸려있는 편역은 후대에 다시 제
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역시 보관 상태가 좋지 못하다.

				四·贈別詔使還朝), 柳命天, 《退堂集》〈退堂先生文集卷之五 題跋· 題朱熊兩天使孤山亭詩記後〉
주지번	隱屏巖	은병암	석각	《退堂先生文集》〈題朱熊兩天使孤山亭詩記後〉· 《星湖全集》제56권 〈朱太史孤山圖詩跋〉
주지번	霽月臺	제월대	석각	상동

이상의 표는 현재 고산정에 걸려있는 판상을 정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이에 대하여 유근의 종중손인 유명천(柳命天 1633-1705)²⁵⁾의 언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이 직접 본 고산정의 편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아마 황조(皇朝: 명나라)의 난우(蘭嶼) 주지번이 지은 〈고산시(孤山詩)〉 1편일 것이다. 극봉(極峰) 응화가 〈고산정사기〉 1폭을 지었다. 그리고 우리

25) 유명천: 1651년(효종 2) 사마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672년(현종 13)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 정언·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1675년(숙종 1) 이조좌랑이 되고, 이듬해에는 대사간·대사성을 지냈다. 유근은 유명천의 종중대부가 된다.

서형 선생이 두 사신과 주고받은 시 두 수를 말한다. 고산은 괴산군에 10리가량 되는 곳에 있다. 하나의 끊어진 산이 있는데, 내려오는 산세도 없고 다른 산과 연결도 되지 않으며 평야에 우뚝 솟아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나의 종중대부 서형 선생이 일찍이 고산의 우측 기슭을 차지하여 정사 한 채를 지어 오고가며 휴식할 장소로 삼았다. 병오(丙午)에 주사(朱使)를 접대하고 기유(己酉) 응사(熊使)를 접하면서 고산형승(孤山形勝)을 보여주면서 두 어른의 노래 가사를 청하였다. 또한 주지번에게 '隱屏巖'·'霽月臺'라는 6개 대자를 부탁하여 바위에 새겼다. 오래지 않아 정사는 불타고 서원이 되었다. 서원은 이전하고 지금은 황무지가 되었다. 정사가 불타버린 지 과연 어느 해인가? 시문은 여전히 벽에 걸려있다."²⁶⁾

이상의 기록으로 보아, 유명천 당시(1705년 이전)에 고산정은 이미 불타버렸고, 그 자리에 서원이 있다가 이것마저 이전되었고 황무지 상태가 되었지만 편액만은 여전히 걸려 있었다고 하였다. 이것이 현재 고산정에 붙어 있는 편액 중에서 주지번이 지은 〈고산시〉와 응화가 지은 〈고산정사기〉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산시〉는 위 표에 있는 주지번의 〈西峒老丈圖示孤山隱居之勝爲賦長歌兼致別意并祈和教以慰離懷〉를 말하는데, 유근이 〈고산은거도〉(혹은 〈고산형승도〉)²⁷⁾를 보여주며 부탁한 것으로 일종의 제화시 형식이다. 이 시는 7언 율시로 72句의 장편 시이다. 그 한 대목을 인용해 보자.

浣花溪似映花潭	완화계(浣花溪) 같은 영화담(映花潭),
蒼壁干霄插渺漫	창벽(蒼壁)은 구름을 뚫고 아스라이 솟아 있다.
霽月光風在懷袖	제월대(霽月臺)의 비개인 풍광이 가슴 속에 남아 있고
林翁溪友交巖巒	임포(林浦) 같은 산골 친구들과 바위를 벗 삼는다.
有時棹舟或策蹇	때로 배를 짓거나 당나귀를 채찍질하여 들어가니,
嶺上歡迎興非淺	고개 마루에서 환영하느라 흥에 겹다.

26) 《退堂先生文集》卷之五, 柳命天〈題朱熊兩天使孤山亭詩記後〉此蓋皇朝蘭嶼朱之蕃所題孤山詩一篇. 極峯熊化所著孤山精舍記一幅. 及我西峒先生所酬答兩使詩二首云. 孤山在始安郡十里許. 有一斷山. 無來勢無聯絡而斗起於平野. 俗號孤山以此也. 我從曾大父西峒先生曾占孤山右麓. 築一精舍. 爲往來游息之所. 丙午僉朱使. 己酉僉熊使. 圖示孤山形勝. 倩得兩翁詠歌之辭. 且要朱內翰隱屏巖霽月臺六大字. 刻於巖石上. 亡何精舍燬而爲書院. 書院移而今爲甌脫矣. 精舍之成燬. 果在何年. 詩文之亦揭其壁.

27) 현재 이 그림은 기록으로만 남아있지, 실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주지번은 영화담을 두보(杜甫)가 노래한 완화계(浣花溪)와 비교하였다. 그림 속의 영화담은 호광산색(湖光山色)이 수려하여 완화계처럼 시정화의(詩情畫意)가 넘치고, 창벽은 구름을 뚫고 솟아올라 그 아름다움을 배가시킨다는 것이다. 게다가 비개인 뒤의 제월대는 마치 임포와 같이 세속의 물욕을 벗어버린 친구와 평생 벗할 수 있는 곳으로 보았다.

이처럼 주지번은 고산구경 중 영화담, 창벽, 제월대, 영객령을 시어에 담아 인문 공간에 대한 인식을 표출시켰다.

앞서 유명천이 말한 〈고산정사기〉는 옹화가 지은 〈유회부고산정사기〉를 말하는 데, 이 역시 고산정의 경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면 몽촌(夢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저의 선대부의 산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몽촌에서 30리 가까운 곳을 점지하였습니다. 그 땅은 사방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데, 산 하나가 우뚝 솟아 있어 고산(孤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은 원래 소나무가 많아 푸른빛을 띵니다.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 그 위에 정자를 짓고 만송정(萬松亭)이라 하였습니다. 그 아래로는 두 개의 물이 나란히 흘러 한 곳에 모여서 연못을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영화담(映花潭)입니다. 고개를 들었다가 내리는 순간 발견한 것인지라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름을 붙인 것은 은병(隱屏)·창벽(蒼壁)·영객령(嶺客嶺)·황니판(黃泥坂)·제월대(霽月臺)와 관어대(觀魚臺)입니다. 비록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영화담이 제일 절경입니다. 연못의 깊이는 몇 길이지만 바닥이 흰히 보입니다. 돌 틈 사이로 철쭉과 진달래가 그물처럼 붙어 자랍니다. 늦봄에 꽃이 피어 물속에 그림자가 비치면 허상과 실체가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정자는 물가에 있고 그 앞으로 조그만 집을 지었습니다. 큰 소나무 수십 그루가 줄을 지어 있는데, 이것들을 합하여 '고산정사(孤山精舍)'라고 부릅니다.²⁸⁾

28) 〈柳晦夫孤山精舍記〉沂漢江而上曰夢村，則先大夫之壟在焉。根亦卜地於夢村三十里之近，其地廣衍四塞中，一山突起是名孤山。山故多松葱翠，以萬計爲構亭其上。曰萬松亭。其下二水合流匯爲潭，卽映花潭也。俯仰所得，莫能盡識，得其名者，爲隱屏，爲蒼壁，爲嶺客嶺，爲黃泥坂，爲霽月·觀魚二臺，雖異狀不一，而映花潭爲最勝。潭水深數丈，其清見底，杜鵑躑躅，羅生石罅間，當暮春花發，倒影水中，空色相應映，而余亭臨其上，前構小屋，列長松數十株，合名之曰孤山精舍。萬曆己酉 中夏月十七日 賜進士第行人司行人 欽差賜一品服 江右 熊化 撰(落款印章)

이처럼 옹화는 유근의 말을 인용하여 고산정의 지리 자연 환경, 인문 경관을 서술하였다. 고산은 강가에 외롭게 솟아 있어 붙여진 것이지만 앞 뒤 글의 전체 문맥으로 보아 고산에서 은거했던 임포의 고결한 품성을 닮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만송정은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고, 그 아래 흐르는 물이 모여 연못을 이루는데 이것을 영화담이라고 하였다. 연못이 바닥까지 훤히 보여 칠썩과 진달래가 피면 물속에 비쳐 그 아름다움을 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변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만송정·은병·창벽·영객령·황니판·제월대·관어대·고산정사를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구경에 관해서는 앞서 서술한 두 개의 판상 외에 양유년이 지은 〈孤山九景爲伴送使柳贊成西峒國相題〉에서 자세하게 읊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고산 구경시(九景詩)이다. 그 예시를 들어보자

황니판(黃泥坂)

赤壁風流成往事	적벽의 풍류는 옛 일이 되었지만,
黃泥煙景此方新	황니의 안개 낀 경치가 이곳에 바야흐로 새롭구나.
主人未暇行歌去	주인은 나가서 노래할 틈이 없었으니,
作賦人今擬後身	아마도 적벽부를 지은 사람이 환생한 게다.

영화담(映花潭)

花底澄潭照月明	꽃 아래의 맑은 연못에 환한 달이 비치니
日描花影漾潭清	날마다 꽃 그림자가 드리우면 맑은 연못은 출렁출렁.
晚煙忽單花枝暝	저녁 안개가 갑자기 한 줄기가 되면 꽃가지가 흐릿흐릿
又有潭邊好月生	다시 연못 옆에서 아름다운 달이 나타났다.

고산정사(孤山精舍)

放鶴湖山有舊圖	옛 그림 속에 호산에서 학을 날리던 장면이 있는데,
東藩今復見林逋	동방 국가에서 지금 다시 임포(林逋)를 만나느구나.
靑山爲客君爲主	청산은 손님 되고, 그대는 주인이 되니
爲報孤山總不孤	나대신 말해 주오, 고산은 언제나 외롭지 않다고.

〈황니관〉에서는 중국 호북성(湖北省) 황강현(黃岡)에서 소동파가 노닐던 황니관을 언급하고 있다. 소동파가 〈황니관사(黃泥坂詞)〉를 지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인데, 유근이 소동파를 흠모하여 그 노닐었던 곳을 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노래하였던 것 같다.

〈영화담〉은 달 밝은 영화담의 아름다움을 묘사하였는데, 달이 떠오르니 꽃 그림자 물속에 출렁거리고 그 속에 아름다운 달이 나타나 더욱 환상적인 경관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고산정사〉에서는 임포가 고산에서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아들삼아 은거하였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고산정사에 은거한 유근의 모습을 떠올렸다. 유근이 청산의 주인이 되었으니, 고산은 외롭지 않다고 하였다. 인간과 자연의 완벽한 일치를 노래하고 있다.

고산정 아래 절벽에 주지번이 쓴 '隱屏巖'·'霽月臺' 석각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 석각의 존재에 대하여 이익(李瀼)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고산정(孤山亭)은 지금의 괴산현(槐山縣)에 있으며 푸른 절벽과 맑은 강물로 호서 지방의 절경 중 하나이다. 바위 벼랑 위에는 아직도 '은병암(隱屏巖)'과 '제월대(霽月臺)'라고 커다랗게 새겨 놓은 글씨가 있는데, 이 또한 태사의 필적이다. 그 뒤 명나라 사신 응화(熊化)가 뒤이어 조선에 와서 〈고산기(孤山記)〉를 지어 주었는데, 《황화집(皇華集)》에 그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천하 사람들이 조선에 이러한 명승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으니 앞으로 시문을 지어 그 감흥을 읊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나처럼 국내에 사는 사람들마저도 그 절경에 가보지 못한 채 당시의 시문에 의존하여 경치를 더듬고 있으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다.²⁹⁾

이상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고산정 일대는 푸른 절벽과 맑은 강물로 인하여 '호서의 절경'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응화의 〈고산기〉와 주지번이 쓴 '은병암'과 '제월대'의 석각으로 인하여 천하의 '명승'이 되었다고 하였다.

29) 《星湖全集》 제56권 〈朱太史孤山圖詩跋〉 孤山亭在今槐山縣. 翠壁澄江. 爲湖西佳境. 其石崖上猶有隱屏巖霽月臺大字刻. 亦太史筆也. 後熊天使化繼至. 爲之記實. 載在皇華集可考. 然則天下人已成知朝鮮國有此名勝. 將有撫詩文而興嗟. 其居域內如我者. 尙不能入其境. 追躡乎當時咳唾餘沫則可恥之甚也.

주지번은 고산정 일대를 ‘湖山勝集’으로 표현하였다. ‘湖山勝集’에서 ‘湖山’은 “호수와 산봉우리”라는 의미로, 당(唐) 원진(元稹)의 〈酬鄭從事四年九月宴望海亭〉시에 “湖山四面爭氣色, 曠望不與人間同(호수와 산봉우리가 사방에 푸른색을 다투고, 멀리 바라보니 속세와 다르더라)”라고 한데서 쓰임을 찾을 수 있다. 호수와 산봉우리의 아름다운 경치가 모두 한 군데 모여 있는 경관을 의미한다. 이 편액은 집경(集景)의 경지를 말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고산정 시문은 고산정 일대의 경관을 미학적으로 표현하였고, 구경을 설정하여 집경의 전범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2. 고산정 시문에 담긴 사대부의 공간인식

이제 고산정 시문에 담긴 사대부의 공간인식에 대하여 알아보자. 여기서 말하는 공간인식이란, 하나의 공간을 바라보는 인식을 말한다. 서문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정국은 일대 변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따라서 당시를 살았던 사대부들의 정신세계도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 사대부들의 정치 참여와 퇴은에 대한 생각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이고, 이것이 공간인식으로 표출되었을 것이다.

고산정 시문에는 당시 사대부들의 공간인식이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다. 그 대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산정 편액의 공간인식〉

작품명	어휘	전고 및 의미
柳晦夫孤山精舍記	東方生, 吏隱	은자와 같은 관리.
柳晦夫孤山精舍記	梅子眞, 仙吏	서한 말기의 은자. 자는 자진(子眞), 강서성 구강군(九江郡)수춘(壽春)사람. 강서 남창 부근으로 은거.
柳晦夫孤山精舍記	大隱, 朝市之言	일설에 의하면 대은(大隱)은 육체는 조정과 저자거리에 있지만 세속의 명리를 극복하고 청정한 마음 유지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면에 소은(小隱) 현실

		세계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고 산천으로 몸을 숨긴 사람을 말한다. 이것이 이른바 “小隱於野，大隱於市”라는 것.
柳晦夫孤山精舍記	隱屏	속세와 떨어진 은거지.
柳晦夫孤山精舍記	矢弗諼	자연에서 은거하여 사는 것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 《詩經·衛風·考盤》“獨寐寤言，永矢弗諼(혼자 잠자고 깨어나 말하는 즐거움을 영원히 잊지 않으리)”에서 유래한 말.
柳晦夫孤山精舍記	菟裘之願	은거하고픈 바람.
柳晦夫孤山精舍記	臥逸	은일.
柳晦夫孤山精舍記	俟功成拂衣	임무를 완성하기 기다렸다가 관복을 떨치고 떠나다. 은거를 의미.
柳晦夫孤山精舍記	陸沈	은거, 은자.
柳晦夫孤山精舍記	期以婚嫁之畢 當散髮高步	자녀 혼사가 마무리되길 기다렸다가 은일하다. 속세의 임무를 다 마치고 산수자연으로 은거한다는 의미.
西垞老丈圖示孤山隱居之勝爲賦長歌兼致別意并祈和教以慰離懷	拂袖待功成	은퇴하여 업적이 이루어지길 기다림.
西垞老丈圖示孤山隱居之勝爲賦長歌兼致別意并祈和教以慰離懷	高隱	은거.
西垞老丈圖示孤山隱居之勝爲賦長歌兼致別意并祈和教以慰離懷	輞川	망천은 중국 서안시(西安市) 남전현(藍田縣)의 지명. 당나라 시인 왕유(王維701-759)가 만년에 여기에 은거하여 ‘망천별서(輞川別墅)’를 짓고 생활하였다. 그가 그린 <망천도(輞川圖)>(이미 실전)는 오랫동안 문인들의 이상세계로 자리함.
西垞老丈圖示	箕潁	기산(箕山)과 영수(潁水). 허유(許由)와 소보(巢

孤山隱居之勝 爲賦長歌兼致 別意并祈和教 以慰離懷		父)가 은거했던 곳.
西壩老丈圖示 孤山隱居之勝 爲賦長歌兼致 別意并祈和教 以慰離懷	逋仙	송나라 임포(林逋)가 서호(西湖)의 고산(孤山)에 은거하여 결혼을 하지 않고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 삼았다고 하여 '매처학자(梅妻鶴子)'했다고 하여 사람들이 그를 '포선(逋仙)'이라고 높여 부름.
敬次正使孤山 隱居圖韻	孤山隱居	고산에 은거.
敬次正使孤山 隱居圖韻	白駒	현인, 은사를 의미함.
敬次正使孤山 隱居圖韻	蘇門嘯	중국 위진 시대 은일시인 완적(阮籍)이 일찍이 소문산(蘇門山)에서 손등(孫登)을 만나 도인술에 대하여 토론하자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완적은 긴 휘파람을 계승하고 물러났다. 언덕은 반쯤 내려왔을 때 봉황의 울음소리와 같은 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는데, 이것이 바로 손등의 휘파람 소리였다. (《晉書·阮籍傳》) “蘇門嘯”는 휘파람 소리를 말하며 고매한 사람의 정취를 비유.
孤山九景爲伴 送使柳贊成西 壩國相題	黃庭	《황정경(黃庭經)》을 말함, 위진 시대 나온 도교 경전.
孤山九景爲伴 送使柳贊成西 壩國相題	隱屏	속세와 떨어진 은거지를 말함.
孤山九景爲伴 送使柳贊成西 壩國相題	隔斷紅塵	세속과 단절된 길.
孤山九景爲伴 送使柳贊成西 壩國相題	林逋	은자의 상징.
謝副使贈萬松 亭九景詩韻二 首	乞骸	걸해골(乞骸骨)의 줄임말. 유골이 고향으로 돌아가 묻히게 해달라는 뜻으로, 옛날 관리가 늙어 임금에게 사직을 요청할 때 쓰는 표현.

謝副使贈萬松亭九景詩韻二首	眞隱出人間	진정한 은자는 속세를 떠난다는 의미.
---------------	-------	----------------------

이상에서 제시한 표를 보면, 고산정 시문에는 조선과 명조 사대부들의 은일의식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허유(許由), 소보(巢父), 동방삭(東方朔), 매자진(梅子眞), 완적(阮籍), 왕유(王維), 임포(林逋) 등 중국의 역대 대표적인 은사들의 다양한 전고를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은(吏隱), 선은(仙隱), 진은(眞隱), 대은(大隱), 소은(小隱), 고은(高隱) 등 여러 가지 은일의 형태, 은병(隱屏)·결해(乞骸)·육침(陸沈)·불의(拂衣)·토구(菟裘)·와일(臥逸)·백구(白駒) 등 속세를 떠나 은일의 길을 걸겠다는 의지가 담긴 어휘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당시 명조 사신과 관계가 깊었던 허균의 심리상태를 보면,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은일의식을 엿볼 수 있다. 허균은 주지번의 〈천고최성첩〉에 대한 후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아서 평소 옷을 훌훌 털고 나와 귀거래사(歸去來辭)를 지으려 한 지 이미 오래되었다. 만일 내 몸이 떠날 수만 있다면 화폭 속의 승사(勝事)를 나도 세속 밖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니, 내가 어찌 고인(古人)을 부러워하겠는가. 그 승지(勝地)·절경(絕境)이란 단지 만난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³⁰⁾

허균이 보았던 《천고최성첩》 속의 그림은 〈도화원기〉와 같이 별천지와 이상향을 표현한 것이므로, 이 그림을 보고 당연히 자신도 〈귀거래사〉를 지으며 은일하고 싶었을 것이다.

유근은 〈고산은거도〉를 주지번과 응화에게 보여주며 시문을 부탁하였다. 은거도를 본 두 사람은 은거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말하였다. 그러나 주지번과 응화의 은거에 대한 태도는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무장적 은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중국의 전

30) 《惺所覆瓿稿》卷之十三 文部十 〈題千古最盛後〉余畸於世。思欲拂衣賦歸去來者已久。若得身以去。則卷中勝事。吾可踐於物外。吾何羨於古人哉。其勝地絕境。在所遇之如何耳。

통 사대부들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현실 정치와 관계를 모두 버리고 무작정 은거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주지번은 〈西垞老丈圖示孤山隱居之勝爲賦長歌兼致別意并祈和教以慰離懷〉에서 은일에 대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담았다.

主恩未忍言高隱	군주의 은혜로 차마 은거에 대하여 말하지 못했지만
爭如性與林泉近	산수자연을 가깝게 여기는 천성을 어이하라
縱有蹄涔活鮒魚	비록 발굽 속에 고인 물이 붕어를 살린다고 할지라도
還思豐草眠麋麋	무성한 풀밭에서 시슴과 더불어 잠자는 것을 회상해본다.

사대부들은 군주로부터 국록을 받는 신세이다. 마치 말발굽 속에 고인 물에 의해서 사는 붕어(蹄涔活鮒魚)³¹ 신세와 같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수자연을 아끼는 천성”을 어찌 할 수 없고, “풀밭에서 시슴과 잠자고 싶은” 욕망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사대부들은 다음과 같은 태도를 견지하였다.

魚水方歡已愛閒	군주와 신하가 화합하여 이미 한가함을 즐기고 있으니
探幽卜築向孤山	그윽한 곳을 찾아서 고산(孤山)에 터를 잡아 누대를 지었다지.
人但嗤君太早計	남들은 그대가 계산속이 빠르다고 비아냥거리지만
我獨於君窺一斑	나만은 그대를 여러 차례 눈여겨보았다오.
丈夫涉世亦玩世	대장부가 세상을 경영하는 것 역시 세상을 즐기는 것이니,
終南捷徑非高致	지름길을 따라 목적 달성하는 것은 고상한 취미가 아니로다.
何須拂袖待功成	어찌 업적이 완성되길 기다렸다가 은퇴하겠는가,
簪纓自有烟霞氣	높은 벼슬아치는 제 스스로 산수의 기운을 지니고 있으니.

위 시에서 언급한 ‘魚水’는 군신간의 원만한 관계를 말하는데, 둘의 조화로운 관계가 태평성대를 이룩했다는 함의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대장부가 세상을 경영하는 것(涉世) 역시 세상을 즐기는 것(玩世)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은거하고픈 마음은 간절했던 것 같다.

31) 《莊子·外物篇》에 나오는 우언. 고철지부(涸轍之鮒), ‘고철고어(涸轍枯魚)’, ‘우제중어(牛蹄中魚)’ 등의 성어로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한 유근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그는 〈敬次正使孤山隱居圖韻〉에 다음과 같이 은일을 꿈꾸었다

太乙真人植青藜 태을진인(太乙真人)이 푸른 명아주 지팡이 세우고
天祿閣畔候公歸 천록각(天祿閣) 언덕에서 그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소.

유근은 서한(西漢) 시대의 장서각인 천록각(天祿閣) 고사가 떠올랐다. 당시 유향(劉向)이 천록각에서 장서를 교정하고 있는데, 밤에 누런 옷을 입은 사람이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들어와 자신이 태을진인(太乙真人)이라고 하며, 천제가 내린 천문지도(天文地圖)를 주고 떠났다는 고사가 전해지고 있다³²⁾. 자신은 유향처럼 은일을 꿈꾸었다고 읊었다. 그러나 그는 사대부가 세상을 경영해야 하는 임무를 완전히 버릴 수가 없었고, 그리고 단호하게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였다.

許身安得望偷閒 나라에 몸을 허락하고 어찌 편안함을 바라는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다짐한 사대부로서 어찌 일신의 안락을 추구하겠는가? 그는 스스로 질문하고 강력한 현실 참여 의미로 대답하였다.

유근은 이어서 〈謝副使贈萬松亭九景詩韻二首〉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唯有夢魂常獨往 다만 꿈의 영혼만은 항상 홀로 머물고 있으니
乞骸安得老菟裘 뼈를 묻는다는 구실을 대고 어찌 사직할 수 있으랴
〈중략〉
沐浴恩波如緩死 생명 연장만큼의 임금님 은혜를 흠뻑 받았으니
白頭長望五雲端 흰머리 되도록 오랫동안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본다.

유근은 “뼈를 묻는다는 구실(乞骸)”을 대고 은거하고픈 마음이 간절하지만 임금의 은혜(恩波)를 받았다는 생각에 미치었다. 결국 그는 늙어죽을 때까지 임금이 계신 곳(五雲)을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만다.

32) 《선전습유(仙傳拾遺)》 참고.

IV. 결론: 고산정의 문화교류적 가치

이상에서 필자는 충북 괴산에 있는 고산정 시문을 통해 17세기 초 병오년과 기유년 두 차례에 나타난 명조와 조선의 사신들의 문화교류와 사대부들의 공간인식을 살펴보았다.

두 차례의 교류는 《황화집》 외에 기행과 사적 교류적 성격이 강한 《봉사조선고》와 《봉동방록》에 담긴 시문은 양국의 국토를 하나의 인문적 관계로 연결하였다. 양국의 사신들은 역참과 역참을 한 선으로 잇고, 사이사이의 산천과 유적지를 하나의 선으로 묶는 한편 이것을 풍속과 연결시켰다.

산수임천과 명승지, 비각에 남긴 제자(題字)는 산수자연에 대한 미학적 해석이며, 문화적 가치에 대한 높은 평가로서 조선 산천을 중원과 대등한 지위에 높였다고 할 수 있다.

고산정 시문은 고산정 일대의 경관을 미학적으로 표현하였고, 구경을 설정하여 집경의 전범을 보였다. 고산정 시문에는 당시 사대부의 현실정치 참여와 퇴은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는데, 당시 사대부들은 현실의 명리를 버리고 은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국록을 먹는 관리로서 사회적인 책임감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생각도 강렬하였다. 결국 그들은 세속의 일을 모두 마치고야 비로소 은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유년이 〈孤山九景爲伴送使柳贊成西峒國相題〉에서 “禪家微處總儒該: 선종의 오묘한 부분을 유가는 언제나 갖추고 있다.”라는 말에서 중세 문인사대부들의 현실 참여와 퇴은 간의 균형적인 태도와 정신세계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었다.

【參考文獻】

- 《丙午皇華集》, 奎章閣藏本, 宣祖二十九年校書館木活字本.
 《己酉皇華集》, 奎章閣藏本, 光海君元年訓鍊都監本.
 朱之藩, 《奉使朝鮮稿》, 無卷數, 兩江總督采進本, 上海圖書館藏明萬曆刻本.
 《槐山郡志》, 槐山郡誌編纂委員會, 1990.
 杜慧月, 《明代文臣出使朝鮮與皇華集》, 人民出版社, 2010.
 안나미, 〈17세기 전후 韓中 문학교류 연구: 晚明 文學 수용 양상을 중심으로〉, 성균관

- 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아시아학과 2011. 2 박사논문.
- 김홍대, 〈朱之蕃의 丙午使行과 그의 서화연구〉, 온지논총11 온지학회 2004.
- 노경희, 〈17세기 초 문관출신 명사(明使) 접반(接伴)과 한중(韓中) 문학교류〉, 韓國漢文學研究 Vol.42. 2008.
- 丁生花, 《朱之蕃의 문학 활동과 한중 문화 교류》, 서울대학교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석사학위논문, 2010.
- 萬明, 〈明代後期中朝關係的重要史實見證-李朝檔案(朝鮮迎接天使都監都廳儀軌)管窺〉, 《學術月刊》, 2005年 第9期.
-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中文提要】

本文章以文化地理的角度來考察了17世紀初朝鮮·明朝之間兩次(1606年丙午, 1609年 己酉)的使臣在孤山亭的交流性格. 孤山亭位於忠北槐山邑霽月里. 孤山亭的主人柳近兩次接伴明朝天使朱之蕃·熊化等一行. 使臣們都是科舉進士出身, 具有高度的文學素養. 他們的唱和孤山亭山水景觀的詩文揭在孤山亭.筆者通過孤山亭詩文探討17世紀初兩國使臣的文化交流情況和空間認識.

兩次交流後, 出版了《皇華集》和《使東方錄》《奉使朝鮮稿》. 這詩文中的大多數具有紀行性·地域性的特徵. 詩文描寫來北京到漢城的來往路程當中的驛站·山水林泉·名勝古跡等連結一線. 兩國使臣們的移動中體現着時空的連續性.

他們通過孤山亭詩文不僅圓滿解決兩國的外交問題, 也表達九景等人文景觀, 如柳根在朱之蕃的眼前提示〈孤山隱居之勝圖〉, 要求賦長歌. 梁有年爲了柳根作〈孤山九景詩〉, 熊化寫作〈孤山精舍記〉.

孤山亭詩文提到許由·巢父·東方朔·梅子真·阮籍·林逋等中國歷代隱士和典故, 而言及吏隱·仙隱真隱·大隱·小隱·高隱等隱逸形式, 表達隱屏·乞骸·陸沈·拂衣·菟裘·臥逸·白駒的慾望. 但柳根在〈謝副使贈萬松亭九景詩韻二首〉云:“沐浴恩波如緩死, 白頭長望五雲端.” 梁有年在〈孤山九景爲伴送使柳贊成西峒國相題〉說“禪家微處總儒該”. 因此, 我們可以發見當時文人士大夫堅持政治參與和退隱之間均衡的態度.

【主題語】

孤山亭, 孤山九景, 空間認識, 柳根, 天使, 遠接使, 館伴, 人文景觀, 朱之蕃, 熊化, 梁有年, 出處, 隱逸.

투고일: 2013. 1. 15 / 심사일: 2013. 1. 20~2. 5 / 게재확정일: 2013. 2. 10